

아철새 30만마리 “우리 오아시스 지켜주세요”



1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지켜라

<5·끝> 철새 천국, 튀니지 이슈켈 공원

침을 삼키기도 어려웠다. 내리쬐는 햇빛의 정적. 코끝엔 송골송골 땀이 맺혔다. 등 뒤로 조막만해진 사륜구동 지프. 개펄 위로 우뚝한 발자국만이 실낱처럼 이어졌다. 한참을 걸었지만 호수는 여전히 신기루처럼 멀어서 어른거렸다. 조심스러운 숨죽임. 얼마를 더 걸었을까. 문득 주황빛 물결이 아련하게 출렁거렸다. 다급히 꺼내든 카메라. 아득하게 뻗은 목선과 다리가 렌즈에 잡혔다. 기약도 없이 돌아다니던 몇 시간, 비로소 수백 마리의 플라밍고(홍학)가 자태를 드러냈다. 한 해 30여만 마리가 찾아드는 북아프리카 최대의 철새 도래지. 튀니지 이슈켈 국립공원의 속살을 드디어 마주한 순간이었다.

글·사진 이슈켈(튀니지)=정양환 기자 ray@donga.com

● “새 한 마리가 나를 부른다. 이 외로운 행성의 어딘가에서 또 만나자고” - 최영미의 시집 ‘도착하지 않은 삶’ 중에서

1부 글 실은 순서

- 1 기상이변 위기 맞은 페루 찬천유적
- 2 건축박물관 베네수엘라 코로항구
- 3 과거와 공존, 모로코 페스
- 4 불교예술 정수, 인도 아진타 석굴

하지만 서둘러 떠나신 공원은 언제 모를 적막감이 가득했다. 푸르다 못해 검은 빛깔마저 띠는 녹음. 산중턱에서 내려다본 호수는 맛있게 먹지 못했다. 구름 위로 아침겨울 찾은 햇빛. 유네스코가 여길 왜 자연유산으로 지정했는지 의문마저 들었다.



이슈켈 국립공원의 대표적인 여름 멸종플라밍고(홍학) 수백 마리가 호수 위로 날아올랐다. 북아프리카 최대 철새도래지인 이곳에는 매년 250여 종의 철새 30여만 마리가 찾아와 한 철을 보내고 간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넘나드는 공중의 길손들에게 이슈켈은 넉넉한 경유지인 셈이다.

“겉모습만 보고 조바심을 내면 진면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풍경은 정물화처럼 고스낙하죠. 야생동물이 뛰노는 아프리카 초원을 기대했다면 잘못 온 겁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호수는 맛있게 먹지 못합니다. 구름 위로 아침겨울 찾은 햇빛. 유네스코가 여길 왜 자연유산으로 지정했는지 의문마저 들었다.”

그리고 보니 이곳은 아프리카답지 않은 독특한 식물군락이 무성했다. 올리브나무와 물푸레나무, 심지어 침엽수종인 노송나무도 눈에 띈다. 호수를 둘러싼 개펄 지대엔 갈대밭도 빼곡하다. 여름엔 건조하고 겨울엔 비가 많은 지중해성 기후. 비제르테 호수를 통해 바다와 이어진 이슈켈 호수의 염분은 습지에 자라나는 가래도 넉넉하게 일궈낸다.

바로 이런 풍성한 공원의 생태가 해마다 250종이 넘는 철새를 이끄는 원동력이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넘나드는 새들에게 이슈켈은 넉넉한 먹이와 쉼터를 주는 경유지인 셈이다. 겨울이면 홍머리오리와 흰족지, 회색기러기 등이 호수를 가득 채운다. 세계적인 멸종위기동물 흰머리루돌프프리오도 여기서 볼 수 있다. 어렵사리 만났던 홍학은 이곳의 대표적 여름 명물이었다.



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진정한 생명의 정치란 모든 생명체와 사람에게 그들의 자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다” -안드레아스 베버의 ‘자연이 경제다’ 중에서

바로 이 대목은 이슈켈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이 공원은 다른 자연보호지역과 달리 공원 내에서 주민이 생활한다. 현재 정부에서 허가받은 100가구 정도가 살고 있다. 공원 주위로 경작지를 일구고, 호수와 인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열핏 자연을 침해할까 염려도 들지만 호세 소장은 생각이 달랐다. “실제 이곳은 석기시대부터 산기슭 등지에서 사람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오랫동안 공존했던 뜻이죠. 역지로 내쫓기보단 그 속에서 자연스레 어울리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유네스코 역시 그 점에 동의했죠.”

하지만 이 공존이 과연 성공적으로 지속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원 바깥에선 갈수록 개간지가 늘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공원 내의 농민들이 자연보호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도 확실치 않다. 가우아니 공원장 역시 “적극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벌이곤 있지만 일부 외부 농민이 맘대로 공원에 들어와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없지 않다”며 걱정했다.

방문취재가 마무리되어갈 즈음 공원장이 꼭 봐야 할 곳이 있다며 채근했다. 갈대밭을 헤집고 한참을 들어갔을까. 농토 주위로 자그마한 연못에 당도했다. 그곳엔 이슈켈이 자랑하는 야생 아프리카물소 10여 마리가 한가로이 먹을 잡고 있었다. 오래도록 사람의 기척에 익숙해진 몸짓. 몇 발짝 다가도 슬쩍 쳐다볼 뿐 굳이 도망치지도 않는다. 한때 멸종위기에 처했던 동물이라기엔 너무나 느긋하다. 이 고스낙한 평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문득 뒤뚱거리는 새끼물소에게 ‘공존’의 뜻을 물어보고 싶어졌다. 어리석은 인간의 낯두리처럼.

북아프리카 유일의 습지

유럽 오가는 철새 쉬어

90년대 초 잇단 가뭄에 위기 10년 복원노력 최근 결실

인구 늘고 개간지 야금야금 ‘조화로운 공존’까지는 먼길

● “나무들은 기나긴 세월을 말없이 고독했고, 그래서 더 영원히 젊은 원숙함을 드러냈다” -이반 알렉세예비치 부닌의 소설 ‘아르세니예프의 생’ 중에서

이슈켈은 현지 철새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존재다. 사실 새들에게 적합한 습지를 머금은 땅은 북아프리카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인근 습원(濕原)은 일찌감치 인간의 손에 농지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슈켈은 13세기부터 왕가 소유 수렵지였고, 18세기부터 1950년대까진 후사인 왕조의 사유지로 보호받았다. 근대국가가 성립된 뒤 곧 198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록돼 큰 피해를 비껴갈 수 있었다.

그렇다고 이슈켈에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이 지역은 가뭄이 몇 년째 이어졌다. 게다가 튀니지 정부는 식수 확보와 수위 조절을 위해 호수로 흘러드는 강들에 댐과 수문을 세웠다. 일대가 건조해지자 가래를 비롯한 습지식물이 줄어들었고, 이는 철새 먹이를 부족하게 만들었다. 결국 1996년 이곳은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까지 올랐다. 이슈켈에 상주하는 엘루미 마리 호세 국립환경연구소장은 그때만 떠올리면 울적해진다. “공원을 찾는 철새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심했을 때는 한 해 3만~4만 마리밖에 오질 않았어요. 호수의 물이 부족해지자 염분 함유량이 올라가면서 생태환경 자체가 변질된 거죠. 정부와 유네스코가 지극정성을 쏟지 않았다면 북아프리카의 유

일한 철새 도래지는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1990년대 후반부터 이슈켈은 엄격한 관리체제로 바뀐다. 종종 있었던 밀렵은 일찌금 금지됐고, 산에서 캐던 품질 좋은 석회암과 대리석 채굴도 중단됐다. 무엇보다 습지식물의 보존을 위해 염분 함유량 보존에 각별하게 신경 썼다. 겨울엔 L당 평균 10g, 여름엔 평균 35g 수준에서 맞춰져야 적당하다. 호수 곳곳에 염분측정기를 설치해 수시로 점검했다. 2006년 오랜 노력이 열매를 맺어 위기 리스트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아메드 반아브달라 유네스코 수석연구원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위기 리스트에서 빠져나왔다고 위함이 사라졌단 뜻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가뭄이 들어서 올해 상황이 무척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정부와 함께 몇 달마다 정기적으로 정밀탐사가 나섭니다. 다행히 현재로선 긍정적인 안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슈켈이 영원히 ‘인

위험에 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연번	국가	유산	위험등록연도	비고
1	에루살렘	에루살렘의 옛 도시	1982	
2	페루	찬천 고고유적지대	1986	
3	코트디부아르, 기니	넴바산맥 자연보호구역	1992	
4	인도	마나스 야생동물보호지역		
5	니제르	아이르 테네레 자연보호구역		
6	콩고민주공화국	비룡 국립공원	1994	
7	콩고민주공화국	가람바 국립공원	1996	
8	에티오피아	시엔 국립공원		
9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마노보군다 생 플로리스 국립공원	1997	
10	콩고민주공화국	카후지비에 국립공원		
11	콩고민주공화국	오카피 야생동물보호구		
12	콩고민주공화국	살롱 국립공원	1999	
13	파키스탄	라호르 성과 살라마르 정원	2000	
14	예멘	자비드 역사 도시		
15	이집트	아부 메나 그리스도교 유적	2001	
16	필리핀	계단식 벼 경작지 코르디레라스		
17	아프가니스탄	암의 침묵과 고고학적 유적	2002	
18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계곡의 문화경관과 고대유적	2003	
19	코트디부아르	코모에 국립공원		
20	이라크	고대도시 아슈르		
21	이란	밤 지역과 문화경관	2004	
22	탄자니아	킬와 키시와니 유적과 송고 음나라 유적		
23	베네수엘라	코로 항구	2005	
24	칠레	올베르스투과 산타 라우라의 초석적암성		
25	세르비아	코스보 중세 유적지	2006	
26	세네갈	니오콜로코바 국립공원	2007	
27	이라크	사마라 고고유적도시		
28	벨리즈	벨리제 산호초 보호지역	2009	
29	그루지야	모츠헤타 중세교회		
30	콜롬비아	로스 카티오스 국립공원		
31	미국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2010	
32	조지아(옛 그루지야)	바그라티 성당과 젤라티 수도원		
33	우간다	카스비에 있는 부간다족 왕릉 단지		
34	마다가스카르	아치나나나 열대우림		

이 시리즈 기사는 유네스코의 협조에 동아일보의 판단과 관점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일반 정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whc.unesco.org)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unesco.or.kr)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명품교육으로 명품인재를 키웁니다

명품에서 명문으로! 중원대학교

신입생 전원장학금에 최첨단 기숙사대학/ 세계 최대 지열과 태양광 에너지의 친환경 캠퍼스, 골프장, 수영장, 박물관까지 갖춘 명품캠퍼스 중원대학교 명품캠퍼스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명품인재가 되십시오

2011학년도 의료보건학부 신설!

세계를 움직이는 1%의 글로벌리더

중원대학교
JUNGWON UNIVERSITY

2011학년도 중원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수시원서접수 : 1차_2010.10.8(금)~10.14(목) / 2차_2010.11.19(금)~11.25(목)

1%의 글로벌리더를 키우기 위한 8대 글로벌 교육시스템

신성장동력산업 중심의 특화된 학부

- 의료공학부 - 의료공학 / 의생명공학
- 한방산업학부 - 한방식품공학 / 한방자원개발학
- 에너지자원공학부 - 대체에너지개발학 / 첨단소재공학 / 자원순환공학
- IT공학부 - 정보보안공학 / 산업디자인학
- 스포츠과학부 - 스포츠건강의학 / 골프과학 / 레저스포츠학
- 사회과학부 - 사회복지학 / 경찰행정학 / 기업경영학 / 세계경영학
- 국제비즈니스학부 - 영미통상학 / 중국통상학 / 일본통상학 / 러시아통상학
- 의료보건학부 - 간호학 / 직업치료학 / 의료정보행정학

1교수 1학습 스타디움 지도제 및 영어강의 의무화

신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한 실용중심의 전공교육

세계 최고 수준의 전교생 기숙사 대학

세계 최고 인재 육성을 위한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 입학상담 : 입학홍보실 Tel. 043)830-8083~5

※ 자세한 사항은 입학 홈페이지 참조 (http://ipsi.jwu.ac.kr)